

## 그렌빌 스텐리 홀의 종교교육: 그의 유년기 심리분석을 중심으로\*

김 재 영

서강대학교

---

### 〈요 약〉

---

현대 교육학 특성 중의 하나는 교육과 종교의 관련성을 간과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와 관련한 언급은 교육학사의 한 부분으로서만 잠깐 언급되거나 특정 종교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교육의 모체로서 종교에 대한 논의는 공교육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의 공교육은 종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 유지는 현대 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간 삶의 중요한 차원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근본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분리시키기 보다는 창조적 통합의 실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주의적인 교육 논의에 종교적 차원을 결합시킨 통합적 교육 논의가 새롭게 요청된다. 이러한 통합적 논의를 독창적으로 전개한 대표적인 교육 사상가가 그렌빌 스텐리 홀(Granville Stanley Hall)이다. 홀은 종교와 연결해서 교육과 심리학적인 주제들을 다양하게 개척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그는 질문지법을 통한 교육과 심리 연구를 발전시킨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대부분 이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새로운 교육학적 논의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한국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아동학을 비롯해서, 자연주의적 종교심리학, 종교교육학, 죽음 연구, 노년심리학, 성서심리학, 청소년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개척하였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종교교육 사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홀의 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유년기의 종교교육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핵심 주제어 : 그렌빌 스텐리 홀, 종교성, 종교교육, 발생심리학, 유년기, 종교적인 인간, 프로펠, 페스탈로찌, 아동교육, 자연주의, 교리주의

---

\* 이 연구는 2004년도 서강 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머리말

문화나 문명의 모체가 되어온 종교의 세계는 인간의 생애시기에 필요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종교의 세계는 원형적인 스승 상, 교육의 정신, 또는 교과 내용과 같은 다양한 교육적 원천자료들을 많이 담고 있다. 그 세계는 인간 삶의 중요한 시기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거나 그렇지 않으면 비유적으로 다양하게 다루기도 한다. 단지 강조와 분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모든 종교전통은 어머니의 태반에 있던 시기로부터 유아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에 해당되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광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점은 동서양의 세계 종교전통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신흥종교전통,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종교전통의 내용을 보더라도 언제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의 문제를 깊게 천착하고 새로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종교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는 것은 필수적이다.

종교전통은 생애의 다른 시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특히 유년기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나 아동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갖고 있다. 종교전통의 경전들과 그 주석서들에는 그러한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 있다. 각 종교전통은 중심 메시지를 기술하거나 전달해 주기 위해 아동이나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많은 비유나 상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육사상가들은 종교전통의 경전이나 주석서를 배경으로 유년기의 교육론을 전개하였다. 많은 연구를 거론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연구로 동양에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바가바드 기타》, 인도의 대서사시인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근거해 적절한 아동 교육을 전개하였다. 불교에서도 아동 관련 교육내용을 불교경전에 기초하여 발전시켰다. 한국에서도 이율곡이 《격몽요결》을 통해서 자신의 아동 교육론을 펴기도 했다. 서양에서도 이러한 예들을 무수히 찾아볼 수 있다. 현대 교육학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사례는 체코의 교육철학자이면서 현대 유네스코 조직의 기본적 그림을 설계한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John Amos Comenius, 1592-1670)의 연구이다. 그는 그리스도교 경전에 근거해 유년기의 사물 인식을 전개한 인물로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sup>1)</sup>를 비롯해서 다양한 교육학 저술들을 출판하였다. 그 저술들을 보면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교의 경전과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연구를 성서의 내용과 결부시켜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페스탈로찌나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인 프뢰벨, 몬테소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 교육학자들도 자신들의 논의에 그리스도교의 아동 이해를 연결시켜 교육론을 펼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유년기에 대한 교육론은 생물학적이고 발달적인 논의, 그리고 자연주의 교육론과 정신분석적 논의를 통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었다. 특히, 기존의 교과내용이나 교육자 중심의 교육론을 비판하고 아동중심적인 교육론을 전개한 루소의 교육론과 정신분석학의 창시

1) 요하네스 코메니우스/남혜승 옮김,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Orbius Sensualium Pictus)』 (씨앗을 뿌리는 사람, 1999)

자인 프로이트의 아동이해가 아동교육에 대한 논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루소는 《에밀》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자연주의적인 교육론을 전개하였다. 그의 자연주의적 아동 교육론은 단순한 아동 중심적 교육의 강조보다는 아동의 생물학적인 욕구 변화에 맞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자연적주의적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루소는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욕구와 배치되는 교육적인 중재나 간섭을 배제하였다. 루소 못지 않게 프로이트도 아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핵심적인 인간 이해는 아동, 특히 4-5세의 어린 아이의 이해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프로이트는 실제적으로 ‘취 인간’과 같은 몇 개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직접 아동들을 분석하지 않았다. 아동을 분석한 경우도 대부분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그의 연구가 유년기나 아동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Anna Freud)가 발전시킨 교육 분석으로서의 아동연구와 영국의 신프로이트 학파에 결정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 멜라니 클라인(M. Klein)의 연구 덕분이었다. 그들의 연구는 아동이나 유년기를 분석할 수 있는 놀이 치료기법(play technique)과 그것의 다양한 변형 기법들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

흥미로운 사실은 루소와 프로이트의 아동 교육론은 이전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전의 교육론에서는 종교가 교육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후의 교육론은 과학적인 현대적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거의 무시되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의 논의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종교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지적한다. 그들은 당시의 교리 중심적인 종교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비판적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그들은 현대의 교육 관련 논의들과는 달리 종교와 교육의 상관관계는 인식하고 있었다. 오히려 지금처럼 종교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현대교육학의 논의와는 다르게 그들은 유년기의 종교교육이나 종교와 교육의 상관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들은 이전 연구자들과는 달리 종교보다는 유년기 아동의 생물학적인 발달과 그것에 기초한 자연주의적인 상상력의 확장을 연결해 낭만주의적 교육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주의 교육론은 종교적 차원을 무시하므로 세속주의 교육론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교육론은 교리적인 세계관을 주입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육에 관한 현대적 논의가 자연주의적 교육론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교육과 종교의 관련성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와 관련한 언급은 교육학사의 한 부분으로서만 잠깐 언급되거나 특정 종교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과 관련해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교육의 모체로서 종교에 대한 논의는 공교육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계몽주의 이후의 공교육은 종교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어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거리 유지는 현대 교육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근본적인 성찰을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거나 분리시키기 보다는 창조적 통합의 실험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자연주의적인 교육 논의에 종교적 차원을 결합시킨 통합적 교육 논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독창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그랜빌 스텐리 홀(Granville Stanley Hall)의 종교교육 사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한다. 특히 그는 종교와 연결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개척하였다. 한국 학계에서 그는 질문지법을 통한 교육과 심리 연구를 발전시킨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대부분 이전까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새로운 논의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그의 업적은 한국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sup>2)</sup> 그는 아동학을 비롯해서, 자연주의적 종교심리학, 종교교육학, 죽음 연구, 노년심리학, 성서심리학, 청소년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를 발전시키거나 새롭게 개척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홀의 논의의 핵심 중의 하나인 유년기의 종교교육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II. 유년기 연구의 관심

홀이 죽은 이후 초기 종교심리학의 태동 시기에 《종교심리학》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종교심리학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 스타버크(Edwin Diller Starburck)는 홀의 연구에 대한 평가 축정을 하였다. 실증적인 연구를 위해 그는 몇 가지 질문지를 준비하여 클라크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자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그 이외의 대학교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에게 홀의 연구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들을 근거로 해서 스타버크는 [심리학회지, *The Psychological Review*(1925)]에 ‘심리학자로서의 그랜빌 스텐리 홀’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 연구에 의하면 당시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은 홀의 연구를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척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당시 세계 최고의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나 빌헬름 분트와 비견될 수 있는 선구자(pioneer)<sup>3)</sup>나 선지자(prophet)<sup>4)</sup>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홀의 심리학 연구가 당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특히 그의 심리학 연구 업적 가운데 유년기 혹은 아동기 연구(studies of childhood)는 가장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대답은 클라크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었다.<sup>5)</sup> 그래서 홀의 개척적인 아동 연구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그를 미국의 아

2) 미국의 심리학과 교육학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에 대한 연구는 각 학문분야의 학사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학계는 서구 이론의 역사적인 맥락과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기 보다는 거칠게 요약 정리하여 적용하거나 비판하는 것에 만족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그러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논의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 이론에 대한 전체적이고 깊은 연구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3) Edwin Diller Starbuck, ‘G. Stanley Hall as A Psychologist’ in *The Psychological Review*, Vol. 32, No. 2 (March, 1925), p.104.

4) *Ibid.* p.109.

5) *ibid.* p.106.

동학이나 아동심리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생각하였다. 그러나 홀은 자신의 자서전인 [어떤 심리학자의 삶과 고백]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자신이 아동연구의 아버지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그는 1879년에 보스톤 지역의 아이들을 연구했던 볼디치(H. P. Bolditch)를 비롯해서 포터나 프레이어를 아동연구의 창시자로 생각하였다.<sup>6)</sup> 그러나 당시의 평가에 대한 홀의 이러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연구 운동의 학문적 관심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킨 사람은 바로 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전체 연구범위와 연결해서 아동연구로 넘어가기까지의 과정을 잠시 언급하면, 홀은 학생시절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철학, 심리학, 교육 그리고 종교와 관련된 주제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물론 그가 독일에 두 번째 갔을 때와 처음으로 정식교수가 되어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육학을 가르칠 때 일군 연구 업적은 특정 연구범위를 넘어 다양한 연구 주제들을 개척했음을 보여준다.<sup>7)</sup> 시기별로 구분 해보면 1880년부터 1890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일반 심리학과 교육학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런 다음 그는 1890년부터 1895년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구체적인 현상을 심리학과 교육학의 관점에서 깊이 이해해 들어갔다. 이때에 그의 아동연구와 청소년 연구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알려졌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를 배경으로 해서 그는 1905년부터 주로 인간의 감성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당시 새로운 분야인 종교심리학과 종교교육학을 확립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각 시기에도 중첩되거나 선행 연구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강조점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홀이 종교교육학이나 종교심리학을 새롭게 주장한 것은 바로 그의 아동연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시점부터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종교심리학이라는 학문적인 용어도 홀의 아동에 대한 강연 안에서 나온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많이 알려지기 시작한 청소년학이나 노년학 등도 생애사의 전체적인 지평 안에서 새롭게 연구했던 아동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아동연구는 그의 전체 연구에 있어 핵심 주제였음을 알 수 있다.<sup>8)</sup>

그런데 아동연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술하려는 유년기의 종교이해이다. 홀이 아동연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교육 문제에 있어 어린 시절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호기심이 결합되면서 싹트기 시작하였다.<sup>9)</sup> 그러나 당시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아동연구는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문헌을 통해 아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홀은 우연히 그의 어머니가 남겨 놓은 글들을 통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분석하면서 아동연구의 가능성을 깨닫게 되었다. 홀의 어

6)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3), p.378.

7) Edward L. Thorndike, *Biographical Memoire of Granville Stanley Hall: 1846-1924*, p.140.

8) Charles E. Strickland and Charles Burgess, 'G. Stanley Hall: Prophet of Naturalism' in *Health, Growth, and Heredity* by Lawrence A. Cremin(Virginia: William Byrd Press, 1965), p.11.

9)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 p.6.

머니는 당시 성경을 늘 읽었고 자연현상과 인간의 여러 모습에 대한 많은 양의 관찰을 일기형식이나 에세이 형식으로 남겨 놓았다. 그녀의 글들은 홀의 아동연구의 원천이 되었다. 그의 어머니가 남겨놓은 글들이 없었다면 홀은 아동연구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홀에게 실제적인 아동연구의 선구자는 그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홀은 어머니의 글들을 통해서 아동연구의 세 가지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는 방법론이다. 홀은 그의 어머니가 기록해 놓은 자신의 탄생과 성장에 관한 다양한 기록으로부터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아동연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한 글들은 관찰자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아동이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녀의 관찰 방법은 지금 사회과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나 현상학적 방법론과 비슷하다. 홀의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였고 관찰된 부분들을 다양하게 기록하였다. 그녀의 아이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은 최근의 발달심리학적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자연의 중요성이다. 홀의 어머니는 자연의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였다. 그녀는 언덕, 산, 시내, 꽃 등 자연의 다양한 대상들을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기술하였다. 그녀가 16세에 기록한 자연에 관한 기록물들도 많은 경우 자연의 성장 과정에 대한 것들이다. 그녀는 자연을 아동의 경우처럼 유기체로 생각해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녀가 젊은 시절에 쓴 “내가 살고 싶은 버찌나무의 일생(autobiography)”이 대표적인 예이다.<sup>10)</sup> 그녀는 어린 시절 자연에 대한 관찰연구가 중요함을 일찍 깨달았고 자연의 변화를 기록하였으며 그것이 아동을 가르치는 데에도 중요한 교육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홀은 그녀의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후에 아동교육과 자연을 연결할 수 있었다. 홀은 당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원천인 “자연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핵심임을 주장하였다.<sup>11)</sup> 더 나아가 그는 만약 아동교육이 자연이 없는 도시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그 핵심을 놓치고 교육이 완성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sup>12)</sup>

마지막 하나는 종교와의 관련성이다. 현대학문의 많은 분야가 그렇듯이 아동연구의 시작은 싫든 좋든 종교와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홀의 아동연구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많은 연구자들과는 반대로 홀은 종교연구가 모든 분야에서 깊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의 근원을 살펴보면 이 또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홀의 어머니는 주일학교의 아동들을 가르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겼다. 특히 그녀는 1841년경에 50페이지 이상 되는 노트에 뽁뽁이 아동에 관한 교수교과내용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 교과과정을 일 년 동안 준비해 완성하였다. 그녀는 십계명, 예수, 바울 등과 같은 인물들뿐만 아니라 신의 존재, 불멸 등과 같은 굵직한 종교교육 주제들도 주일학교 아동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내용들을 고착화된 교리나

10) *Ibid.* p.31.

11) *ibid.* p.21.

12) *ibid.* p.176.

신학적 관점에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들을 매개로 가르쳤다. 가장 많이 사용한 예는 신을 아동들이 경험한 아버지의 이미지와 연결해 가르쳤다. 이러한 구상으로부터 그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리에 근거한 교재가 아니라 아동의 경험에 기초한 아동중심적인 교재를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그러한 교육이 교회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언제나 그녀가 강조하는 주일학교 교육의 강조점은 아동이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친절, 사랑에 모아져 있다.<sup>13)</sup> 홀은 그녀의 주일학교 교육 내용이 당시 어떠한 주일학교 교육에도 뒤지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sup>14)</sup>

어머니의 기록들과 더불어 자신의 아이들을 양육한 경험, 유대인 은행업자인 제시 셀리 그만의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도 홀의 아동연구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홀의 이러한 연구는 1890년대 미국에서 아동교육에 관한 연구가 확산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sup>15)</sup> 그 결과 홀은 1891년 아동연구의 글들을 많이 다룬 학회지 [교육연구, *Pedagogical Seminary*]를 창간하였다.<sup>16)</sup> 아동에 대한 홀의 초기 연구는 이 학회지를 통해 발표되었다. 연구의 발전은 총장이자 교육학과 심리학 교수로 재직하였던 신생 클라크 대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아동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계기를 토대로 세 가지 측면에서 발전되었다.<sup>17)</sup> 첫째, 그의 연구는 학교의 실질적인 교육의 상황들이나 조건들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둘째, 그의 연구는 교육의 토대로서 생물학적인 자연주의적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홀은 아동들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발달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였다. 정신적인 내용보다는 아동들의 신체 발달에서 요구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아동연구의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그의 연구는 아동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탐구 방법론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언제나 실험적인 과학적 연구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세 측면이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구는 주로 둘째 측면인 생물학적인 자연주의적 관점이 중심을 이루었다.<sup>18)</sup> 그의 연구는 단순히 아동의 심리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에 따라서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논의는 클라크 대학교에 오기 전인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부터 발전되었다. 사실상 존 듀이도 학생시절에 홀의 강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실험교육학교를 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홀은 자신의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미국에선 처음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아동 연구를

13) *ibid.* p.34.

14) *ibid.*

15) Dorothy Ross, *G. Stanley Hall: The Psychologist as Prophet*(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72), p.279.

16)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 p.301.

17) Dorothy Ross, pp.292-93.

18) Charles E. Strickland and Charles Burgess, "G. Stanley Hall: Prophet of Naturalism" in *Health, Growth, and Heredity* edited by Lawrence A. Cremin(Richmond: William Byrd Press, 1965), pp.2-3.

시작하였다. 그는 1872년 세계 최초로 질문지법을 사용해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라자로스(Lazaros) 방법을 받아들여 아동의 내면세계와 몸이나 행동 변화의 상관관계를 깊게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1883년 처음으로 질문지법을 통해 보스턴 지역의 아동기 학생들의 마음과 몸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려고 하였다.<sup>19)</sup> 그는 보스턴 지역 유치원의 창시자인 폴린 아가씨즈 쇼(Pauline Aggassiz Shaw)와 그녀의 논의를 잘 알고 있던 월츠(S. E. Wiltse)와 시몬즈(L. H. Simonds)의 도움을 받아 보스턴 지역의 아동들의 내면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 결과로 나온 “학교를 입학할 때 아동들의 마음의 내용(The Contents of Children's Minds on Entering School)”이다. 이 논문은 1883년 5월 <프린스턴 리뷰>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아동 연구의 시작으로 간주되고 있다.<sup>20)</sup> 아동연구 논문 발표와 관련해서는 1883년이 미국 아동연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 해 앞선 1882년 홀이 국가 교육협의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강연한 것이 아동연구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한 시점이었다.<sup>21)</sup> 홀은 아동연구의 필요성과 관련된 최초의 강연과 논문을 계기로 다양한 아동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를테면 그는 1884부터 1895년까지 15가지의 질문지를 통해<sup>22)</sup> 아동들의 인형놀이, 거짓말, 두려움, 분노, 울음과 웃음, 자아감, 습관, 무생물체에 대한 느낌, 식욕과 음식,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경험, 읽기와 쓰기의 시작 등을 연구하였다.<sup>23)</sup> 이러한 연구를 계기로 그의 제자들도 다양한 아동연구를 미국에서 주도해 갈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구를 구체적인 현장에 적용하였다. 특히 홀은 언제나 아동연구의 결과를 교육학이나 교육의 현장과 연결하였다. 그러므로 홀에게 있어 아동연구는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은 비단 아동연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의 또 다른 개척 분야들인 종교심리학, 청소년학, 노년학 등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그가 심리학을 연구하는 것은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도였다. 홀은 이러한 문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1909년 클라크 대학교 탄생 2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기념행사 중에서 역사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행사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당시 유럽에서 많은 오해를 받았던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와 그의 제자였지만 나중에 헤어진 칼 융 그리고 페렌찌를 초대하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정신분석학 강연을 개최했던 행사였다. 이를 통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소개되었다.<sup>24)</sup> 다른 하나는 정신분석학 못지않게 영향을 미친 아동연구 학술대

19)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 pp.378-89.

20) G. Stanley Hall, *Aspects of Child Life and Education*, pp. iii-iv

21) Dorothy Ross, *G. Stanley Hall: The Psychologist as Prophet*, p.126.

22) *Ibid.*, p.290.

23)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 p.382.

24)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의 강연에 잘 정리되어 있다: William A. Koelsch, 'Incredible Day-Dream': Freud and Jung at Clark, 1909 (Worcester: Clark University, The Friends of the Goddard

회이다. 이 학술대회는 20주년 기념행사 첫 번째 주간에 열렸는데 아동 복지 조직의 대표자들이 15개 분야로 나뉘어 47개의 논문을 발표하였다.<sup>25)</sup> 사실 이러한 학술대회 덕분에 관련 대표자들이 서로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대회 이후에도 계속 아동학이라는 주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1909년 개교 기념 20주년 학술대회는 여러 측면에서 클라크 대학교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당시 새로운 분야였던 아동연구가 미국과 세계에 학문과 실천의 측면에서 주목을 받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한 계기가 동인이 되어 홀은 그 다음 해인 1910년에 클라크 대학교에서 아동연구와 복지에 관련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때에도 며칠 동안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는데 48 개의 논문 발표와 논평이 있었다. 이 학술대회에는 40 여 개의 아동복지 관련단체가 참여하였다. 그 학회가 있는 지 얼마 후 홀은 미국 아동학술협의회를 조직해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그는 클라크 대학교에 아동 연구소(Child Institute)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아동연구를 발전시켰다. 그 연구소에서 홀은 12가지 주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sup>26)</sup> 즉, 그 주제들은 아동과 관련된 정부 법안에 대한 다양한 자료 분석, 출생률과 사망률, 위생문제, 정신지체 아동, 범죄, 악, 아동 언어학, 인류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문제, 실험적인 교훈, 아동 노동,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훈련, 교육 박물관 등이다. 각 주제는 책임 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사실 몇 가지 주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홀의 주도하에 각각의 주제가 연구되었다.

### III. 유년기의 종교성

인간은 다양한 교육을 적절하게 받으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제도화 되어있는 공교육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밖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평생교육의 도상 속에 있는 존재이다. 그러한 도상에서 인간은 무엇을 배우고 실현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논의는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교육학에서는 교육학의 독자적인 논의를 발전시키기 보다는 종교, 철학 그리고 심리학과 연계해 전개하였다. 지금도 이러한 상황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홀도 자신의 교육론을 전개해 나갈 때 언제나 종교, 철학 그리고 심리학으로부터 많은 논의를 빌려왔다. 그런데 그는 종교나 철학 그리고 심리학을 연구할 때에도 언제나 교육의 문제를 핵심에 놓았다. 홀이 교육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종교, 철학 그리고 심리학과 연결시키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인간의 심층적 내면에 대한 이해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을 교육적으로 실현

Library, 1984).

25)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y*, p.332.

26) *Ibid.*, pp.401-02.

시키려는 관심이 종교, 철학 그리고 심리학에 공통적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홀은 그 당시 많이 논의되고 있던 단자론적인 관점보다는 복합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인 내면을 영혼(soul)이나 정신(psyche)으로 이해하였다. 그의 논의에 의하면 영혼은 인간의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그 자체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이루면서 나아가는 존재이다.<sup>27)</sup> 이러한 영혼이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모습이 바로 “최선의 인간 가능성(the best human possibilities)”<sup>28)</sup> 또는 “최고로 완성된 자기실현(the fullest self-realization)”<sup>29)</sup>이다. 이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교육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겉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혼의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광부가 굴을 파서 깊은 곳에 있는 광맥을 찾는 것처럼 아동의 이면을 넘어 심층 속에 있는 영혼을 탐구해 들어가는 고고학(the archeology of the human soul)인 것이다.<sup>30)</sup>

성인이 된 인간뿐만 아니라 아동의 모든 정신적인 욕구도 바로 이러한 영혼으로부터 생성된다. 영혼이 모든 정신적 욕구의 원천지이다. 그런데 영혼은 한 순간도 정지되거나 고정된 상태로 남아 있는 불변의 실체가 아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 엄마의 태반에서 10개월 정도 성장한 다음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변화하듯이, 인간의 영혼도 엄마의 태반에서부터 생애 내내 계속 다양한 변화를 겪는다. 그러나 영혼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 구조적으로 변화를 멈춰 성장이 중지되거나 퇴화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성장해 가는 존재이다. 그것은 계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인간의 심층 속에 심겨 있는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인간의 생애 안에서 시기적절하게 양육될 때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그 씨앗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고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할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 생애에 있어서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양육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홀은 그러한 생애의 시기를 인생의 후반부에 저술한 《노년기: 인생의 절반인 마지막 시기》에서 5 단계로 구분하였다.<sup>31)</sup> 그 시기들은 유아기를 포함한 유년기(childhood), 사춘기를 지나면서 생식기관이 완전히 발달한 청소년기(adolescence), 20대 중반에서 40대에 걸친 청·장년기 또는 중년기(middle life), 40대 이후에서 시작하는 장년기와 그 이후의 노년기(senescence)이다. 그의 이러한 단계 구별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큰 차이의 연령시기 구분 때문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심리학이 일반화되기 이전에 이미 생애시기를 이렇게 나누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연구 분위기를 감안할 때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홀은 이렇게 생애를 구분한 다음, 당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모든 철학적, 신학적, 사회학적, 진화론적, 실험심리학적 그리고 정신분석적인 논의들을 종합해 몸과 영혼의 변화과정을 이해하였다.<sup>32)</sup>

27)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1,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201.

28) *Ibid.*, p.200.

29) *Ibid.*, p.204.

30) G. Stanley Hall, "Preface" in *Aspects of Child Life and Education* (New York: Ginn and Company, 1907), p.ix.

31) Granville Stanley Hall, *Senescence: The Last of Half of Life*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2), p.vii.

홀은 이러한 접근을 발생심리학(genetic psychology)이라고 이름 붙였다.<sup>33)</sup> 발생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생애의 각각의 단계는 이전 발달의 시작을 완성시키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발달을 향해 나아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출생과 그 이후의 전 생애과정은 이전 시기의 영혼의 표출과정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과정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또 다른 과정을 만들어내는 태반이다.<sup>34)</sup> 다른 어떠한 시기보다 유년기의 특성은 지성적이거나 논리적인 맥락을 갖고 있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맥락을 갖기 훨씬 이전의 상태인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오히려 유년기는 생각보다는 먼저 느끼고 발산하는 차원을 갖고 있는 시기이다. 인간이라는 종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인간의 지성적이고 의식적인 차원은 지극히 최근의 산물이다. 이러한 점은 인간이라고 하는 종인 인류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차원이다. 홀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을 직접 인용해서 들어보기로 하자.

사유, 이성 그리고 그것들의 전달 수단인 언어 셋은 모두 영혼의 자연적인 발달사에서 볼 때 지극히 새로운 것들이다. 아주 오래 전에는 정신적인 삶은 지금의 삶과는 매우 달랐다. 그 때에는 감정, 본능, 그리고 충동이 전부였다. 그것들은 전 인류와 동물들에서도 공통적이었다. 반면에 지성은 후에 나온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을 서로 서로 그리고 다른 종과도 구별하도록 하는 개인적인 산물이다.<sup>35)</sup>

유년기의 이러한 일반적인 모습은 영혼의 또 다른 욕구인 종교성도 예외가 아니다. 유년기의 종교성도 인류의 고대적인 흔적으로 아동의 영혼 속에 남아 있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의 표출이다.<sup>36)</sup> 유년기의 다른 특성과 마찬가지로 종교성도 지적으로 세련되거나 논리적이기 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특정한 종교전통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심층 속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특성이다. 각 종교전통의 교리나 의례는 아동의 종교성을 발현시키는 계기를 강화시켜주는 수단이므로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반대로 교리나 의례가 종교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년기의 종교성은 시간적으로 성인이 갖고 있는 제도화된 종교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고 오히려 그 이후의 종교의 발달을 갖게 해주는 자연적인 원천이다.

가공된 상태가 아니라 자연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유년기의 종교성은 오히려 성인의 종교성보다 즉각적인 활력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종교성은 아름다움, 공포, 두려움과 같은

32) 이러한 상세한 논의는 홀의 자서전 속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히 제 8장인 '심리학의 진보'에 잘 나타나 있다.

33)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I.(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140.

34)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II(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305.

35)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I.(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91.

36) *Ibid.* p.3.

다른 특성에 병렬되어 있거나 종속되기 보다는 그것을 하나로 묶어내는 강렬한 통합적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홀은 이러한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논의보다는 매우 인간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자연주의적 논의를 그의 전체 사상을 통해 전개하였다. 홀은 예수의 생애도 신학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연주의적인 발생심리학의 관점에서 탄생, 성장,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들, 종말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기술하였다. 그 책이 바로 그가 20여년에 걸쳐서 완성한 《예수,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그리스도》라는 700페이지가 넘는 기념비적인 책이다. 이 책은 심리학적인 성서 이해의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종교성을 이해하는 것은 홀의 전체 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종교성은 영혼의 욕구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홀은 아동의 종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직접 관찰을 하거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홀이 직접 관찰한 경우도 있지만 그의 제자들이나 유치원 교사와 원장들의 아동 관찰 기록물들을 토대로 아동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접하기도 하였다. 앞서도 언급한 아동연구의 미국 최초의 학문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입학할 때 아동들의 마음”이라는 글을 보더라도 종교와 관련된 질문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가 만든 질문지를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섯 가지 주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sup>37)</sup> 그 주제들은 자연의 힘, 기계적인 힘, 생명의 기원, 신학과 성서 이야기, 죽음과 천국, 그리고 호기심과 관련된 질문이다. 그 주제들 각각의 하부 질문을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구체적인 믿음의 대상이나 활동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를테면 그 질문들은 신, 그리스도, 기도와 노래, 종교적인 것, 교회, 교회마당, 예수, 성서의 역사, 신적인 봉사, 세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38)</sup> 더 나아가 최초의 논문에서 제시한 자신의 연구를 검증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후에 그는 여러 차례 아동과 관련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일학교 연구 학술분과를 구성해<sup>39)</sup> 아동들의 종교성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 IV. 유년기의 종교교과 특성

홀은 교육 중에서 유년기의 종교교육이 인간의 자기실현을 이룩해 가는데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였다. 사실 그가 이러한 논의를 할 때에는 많은 경우 종교교육이 계몽주의와 과학의 영향 때문에 교육적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이해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이해가 많이 있었다. 비록 유년기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유년기의 종교교육은 미신적인 내용이 많아서 기존의 과학적 논의와 대립된다는 생각이 교육

37) G. Stanley Hall, *Aspects of Child Life and Education*, p.106.

38) *Ibid.*, p.8, pp.44-6.

39) Dorothy Ross, G. Stanley Hall: *The Psychologist As Prophet*, p.301.

의 논의에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타협안으로 많은 학교들은 종교교육 대신에 도덕교육(moral education)이라는 교과목을 시행하였다. 홀은 이러한 시대흐름에 동의하지 않고 도덕교육에 있어서도 종교교육이 전제되지 않은 경우 마치 뿌리가 없는 교육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였다.<sup>40)</sup> 그는 도덕교육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가능성을 구체화시켜주는 모든 교육에 종교가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유년기의 종교교육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교육을 무시해버리는 환경에서 종교교육을 유년시기에 받게 하지 못하고 방치할 경우 온전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종교교육을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내적인 욕구에 상응하는 종교교육이 아니라 종교 교리 자체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시행할 경우 극단적인 종교주의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홀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자.

그러므로 요약하면, 아동을 위한 종교교육의 문제는 그들의 내적인 본성과 욕구를 주로 살핍으로써 풀릴 수 있다. 아동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아동을 위해 존재한다.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시대만큼 교리적인 교육을 강요해 가정, 학교, 교회에서 유년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시대도 없었다...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된 아동이 될 수 없는 어린아이는 결코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종교적으로 발육부진의 상태가 될 것이다.<sup>41)</sup>

내가 생각하기로 아동교육에 있어서 종교의 부재는 엄청난 손실을 갖게 한다. 교화된 성인들에게는 없는 신화와 우화가 종교라고 할지라도 유년기는 - 종교가 전능한 힘을 발휘했을 때 - 인류의 삶 속에서 계속해 그러한 신화와 우화를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본성은 무한히 종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아동들도 권리를 위한 초자연적인 제재를 받을 필요가 있다.<sup>42)</sup>

유년기의 아동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홀의 연구는 종교, 교육 그리고 심리연구의 이론적 틀을 마련한 토대였다.<sup>43)</sup> 또한 홀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의 욕구와 연결해서 종교교육 교과내용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 내용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홀의 유년기에 대한 이해는 유아기를 비롯해서 초등학교의 시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이해에 근거해서 그는 엄마와의

40)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207.

41) *Ibid.* p.149.

42)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I,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620.

43) Dorothy Ross, *G. Stanley Hall: The Psychologist as Prophe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305.

관계가 밀접히 연결된 아주 어린 유아시절, 말을 할 줄 알고 알아들을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의 시기에 필요한 종교 교과내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먼저 유아기의 종교교육 교과내용의 특성을 살피기로 하자. 홀은 유아기의 종교성은 구체적으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발달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특히 무엇보다도 먼저 유아기의 아동은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러한 경험에 근거해 자신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sup>44)</sup> 홀은 이러한 경험의 과정이 종교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45)</sup>

사실 홀의 이러한 아동에 대한 이해는 현대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론의 입장과 거리가 멀지 않다. 놀라울 정도로 홀은 특유의 통찰력으로 현대 정신분석학자들보다 훨씬 먼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아동의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도덕과 종교적인 훈련”이라는 글에서 말을 하기 이전의 시기인 요람에서부터 종교교육을 시작할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유아는 의식적으로 엄마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종교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홀은 당시 유치원 교육의 아버지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프뢰벨(Froebel)의 논의를 받아들였다. 그의 논의에 근거해서 홀은 유아의 초기 무의식의 상태는 공허한 상태가 아니라 의식의 분화를 이룩하기 위한 원천이면서 동시에 신의 품속에서 쉬고 있는 상태, 즉 가장 강렬한 종교적인 상태로 이해하였다.<sup>46)</sup> 그러한 상태는 인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씨앗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종교인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상태는 결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 발달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단지 이러한 무의식적인 상태가 의식적으로 잘 분화 발달될 수 있도록 엄마가 좋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종교교육은 어떠한 특정 종교교과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표현하는 다양한 몸짓과 감정이 바로 어린 유아가 배우게 되는 교과목이 된다. 이시기에 유아는 엄마와 일반적인 소통 수단인 말을 통해서 교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접촉, 눈빛, 웃음, 그리고 울음과 같은 몸짓과 소리로 소통한다. 사실 엄마의 소리와 몸짓은 어린 유아에게는 최초의 의식적인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세상과 접촉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경험한 엄마는 바로 유아에게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인 신의 위치로 자리 잡게 된다. 종교인들이 신에게 경험하는 감사, 신뢰, 의존 그리고 사랑 등도 어린 시절 엄마에게 가졌던 경험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에게 원래부터 본성적으로 씨앗으로서의 무의식적인 종교성이 잘 발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린 유아에게 있기보다는 그 유아를 돌보는 엄마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아에게 엄마의 역할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절대적

44)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138.

45) *Ibid.* p.246.

46) G. Stanley Hall, *Youth: Its Education, Regimen, and Hygiene*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5), p.351.

인 책임을 요청하는 성스러움(sacredness) 자체이다.<sup>47)</sup> 이렇게 보면 엄마는 종교교육의 교사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종교 교과내용을 갖고 있는 학교이다.

다음으로 말로 소통할 수 있는 시기의 종교교육 교과내용의 특성을 살피기로 하자. 앞서도 지적했듯이 홀은 유년기에는 어떠한 교육이든지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문화적인 환경보다 자연적인 환경이 아동들의 교육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확신하였다. 그는 자서전에서 그가 살아왔던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다양한 자연과의 경험을 그가 교육받은 것 중에서 최고의 교육이었음을 주저 없이 고백하였다.<sup>48)</sup> 자연과의 경험은 아동에게 육체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주기도 하지만 그것과 비례해서 정신적인 발달도 이루게 해주는 연결고리라는 것이다. 홀에게 있어서 어린 유아의 시절에 엄마가 교육의 원천인 것처럼 그 다음의 시기에는 자연 환경 자체가 바로 모든 교육의 원천이다. 자연이 교사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교과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서를 구비하고 있는 살아있는 학교이다.

종교교육과 관련해서도 자연학교는 아동의 종교성을 계발시켜 줄 수 있는 교과내용을 풍부히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홀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경험한 것을 넘어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종교성이 발달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홀은 아동이 자연과의 대면을 통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감정들이 종교적인 삶으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는 원천으로 이해하였다. 홀의 논의를 인용해보기로 하자.

천둥에 대한 두려움과 장엄함, 봄 아침의 경치와 소리들, 그리고 아동의 생각을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오래된 나무, 폐허, 바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체와 같은 대상들은 유년기의 유치된 교육에 있어서 교사가 종교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교재이다. 자연의 영향 아래에 있던 아동이나 천문학자가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감정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의 마음은 옛날 선지자가 영감을 주는 성령에 고무되는 것처럼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아동은 자연과 초자연적인 것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적인 대상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왔고 인간의 세대와 인류의 가슴 속에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나뒹가게 남겨있는 시적인 신화적 상상이 아동에게 지금 영혼의 양식 중에서 최고의 양식이다.<sup>49)</sup>

자연은 바로 아동들의 영혼으로부터 종교성의 원천인 사랑, 의존, 경탄과 경이로움을 분출시키도록 인도해 주는 교과서이다.<sup>50)</sup> 아동은 자연의 현상과 대상을 깊이 경험하면서 종

47) Ibid. p.352.

48)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3), p.177.

49) G. Stanley Hall, *Youth: Its Education, Regimen, and Hygiene*(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5), p.353.

50)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139.

교성을 계속 다양하게 발산한다.<sup>51)</sup> 아동들은 태양, 달, 별, 바다, 바람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나무, 구름, 개울물 소리 등과 같은 다양한 자연대상을 의인화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숭배의 대상으로 격상시키기도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동들은 그 대상들 이면에 있는 또 다른 대상을 상상해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모든 자연적인 대상을 만든 신을 상상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때때로 자연을 신비화시키거나 우상화시켜서 “미신”이나 애니미즘의 요소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건강한 종교성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적 때문에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비판이 많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홀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소위 “미신”이나 애니미즘의 상태는 인간 지성의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과정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의 사고를 넘어서서 상상력을 불러내는 감정의 상태이기 때문이다.<sup>52)</sup>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과정은 유년기의 삶에서 피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성숙한 종교적 삶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홀에게 있어서 “미신”이나 애니미즘은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좀 더 발전 할 수 있게 해주는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홀이 유년기의 초등학교 시절에 가르쳐야 할 교과목을 제시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교과목에 대한 앞의 두 특성은 주로 그 시기에 맞는 일반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유년기의 마지막 단계의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주로 그리스도교 전통과 연관해서 주일학교와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교과목을 제시하였지만 많은 글들 속에는 또한 그리스도교의 범위를 넘어 세계종교전통과 연결해서 하나의 교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을 기술하기도 하였다. 홀은 인류의 문명이나 문화를 잉태했던 종교전통의 경전이나 제도 또는 사상을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인 영혼을 통해서 드러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것들은 바로 영혼의 표상인 것이다. 그것들은 이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심층적인 내면을 표현하도록 인도해주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sup>53)</sup> 즉, 그것들은 단순한 책이나 사상 또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고 표출시켜주어 전인적인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상징이다.<sup>54)</sup> 그러므로 종교전통의 경전은 영혼의 교육을 위한 최고의 교육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홀은 종교교육 교과목을 경전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과 연결해서 영혼의 양식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그리스도교와 연결해서 홀이 생각한 교과목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홀은 성서를 우주의 창조사건으로부터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사건을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

51) *Ibid.* p.138.

52) *Ibid.* p.181.

53) G. Stanley Hall, *Morale: The Supreme Standard of Life and Conduct*(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368.

54)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I.(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229.

로 생각하였다. 홀에 의하면 각각의 이야기는 유년기의 아동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야기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지 역지로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교리적인 내용을 추려서 그것을 아동들에게 교육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시기보다도 유년기는 구조적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직접 교사로부터 듣고 싶은 시기이다. 그러므로 유년기에는 종교교육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해야 한다. 홀은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유년기의 교육이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55)</sup> 아동들은 종교교육을 통해서 성서를 하나의 교리서라기보다는 수많은 인물이 다양하게 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다양하게 드러내놓은 삶의 이야기로 인식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야기가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구약성서가 신약성서보다 교육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구약성서의 많은 이야기는 고대의 고전 이야기처럼 영웅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아동들은 구약성서에 가득 차 있는 선과 악, 죄의 문제, 아픔과 기쁨, 울고 그름, 질투, 깨끗함, 싸움, 복수, 정결함, 명예, 제사행위, 놀이, 얘기하는 방법과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의와 양심교육을 종교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sup>56)</sup> 그러므로 어떠한 책보다도 구약성서는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양심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교과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경우, 유년기의 종교교육에 있어서 성서의 핵심은 예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예수의 메시지를 교리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초자연성만을 강조하여 인간으로서 그가 살았던 모습이 의도적으로 생략되거나 강조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홀은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예수의 이야기가 핵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초자연적 측면만 강조하여 아동에게 교육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하였다. 오히려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초자연적인 차원보다는 인간으로서 예수가 살았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sup>57)</sup> 예수의 신성이나 초자연성에 대한 측면은 청소년기의 종교교육 교과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유년기에는 예수가 보여준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경험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년기의 아동들은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유년기는 생물학적으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생물학적으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성애 눈뜨고 정신적으로도 사랑을 드러내는 청소년 시기가 예수의 사랑을 그나마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기이다.<sup>58)</sup> 그러므로 예수가 부모, 제자들, 환자들, 일반 대중들, 아동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세금업자, 죽은 자, 의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55) G. Stanley Hall, "Introduction" in *The Pedagogical Bible School* by Samuel B. Haslett(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3), p.3.

56) G. Stanley Hall, *Youth: Its Education, Regimen, and Hygiene*(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5), p.356-57.

57) *Ibid.* p.314.

58)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161.

보여준 모습을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인 논증보다는 한 인간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로 아동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홀은 유년기의 아동에게 강제적으로 너무나 빨리 예수나 신에 대한 교리나 경전을 가르칠 경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유년기의 잘못된 교육 때문에 더욱 깊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종교적인 삶을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리적으로 배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유년기에 강요된 교육은 생물학적으로 사춘기나, 성인기 그리고 노년기에 달했음에도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삶은 자라지 못하여 여전히 유년기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유로움 보다는 유년기의 종교적인 삶이 올무가 되어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경우 홀은 유년기에 나타난 경건성의 모습은 매우 위협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9)</sup> 그러므로 이 시기에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동에게 성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이야기들 중에서 예수의 탄생, 세 명의 동방박사의 방문, 성전에서 예수가 한 행동,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했던 일, 예루살렘로의 입성,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일, 예수의 죽음과 무덤과 같이 하나의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양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철저히 교육하는 것이다. 종교교육이 예수의 이야기를 교육하면서 이야기보다는 성급하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그러한 종교교육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교육을 받은 아동은 청·장년기를 지나면서 회의론으로 빠질 수 있다.<sup>60)</sup>

더 나아가 홀은 종교교육 교과 내용을 그리스도교의 경전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계종교전통과도 연결하였다. 사실, 그는 당시 신생학문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종교학의 태동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종교학의 아버지인 막스 뮐러의 저서들과 방법론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클라크 대학교 총장으로 초대받았고 난 이후 유럽의 대학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할 때도 비교종교학자들을 많이 만났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비교종교학자인 티레를 만나기도 하였고 프랑스에서는 고등연구원에서 불교학을 비교종교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던 다양한 연구자들과 많은 토론을 나누기도 하였다.<sup>61)</sup> 그뿐 아니라 북유럽의 대학과 러시아 대학도 방문하면서 비교종교학자들을 통해 유럽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깊이 알게 되었다.<sup>62)</sup> 그 이후에도 그는 비교종교학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섭렵하였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그는 더욱 더 자신의 발생심리학에 근거한 일반 교육학과 심리학을 비롯해서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죽음연구 그리고 종교교육학, 종교심리학 등을 세계종교전통이나 문명에 대한 이해로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의 연구 주제 중에서 종교학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종교심리학과 종교교육학의 논의는 세계종교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59)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163.

60) G. Stanley Hall, *Aspects of Child Life and Education*, p.48-9, p.121.

61) G. Stanley Hall,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3), p.266.

62) *Ibid.*, pp.266-77.

홀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교 전통을 비롯해서 세계종교전통을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으므로 세계종교전통에 대해서 가치판단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종교의 참과 거짓은 논리적이거나 철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논증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러한 전통을 고백하는 종교인들의 심층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미를 제공해주면 참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교 이외의 다른 종교전통을 흔히 당시에 그랬듯이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적인 욕구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영혼의 양식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그러한 의미는 단지 주관적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확증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단지 자신의 종교전통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위에 있는 타자와의 연대에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 연대감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존재 가치라는 것이다.<sup>63)</sup> 그는 그러한 삶이 현대에 강력히 요청되는 새로운 휴머니즘(new humanism)이라고까지 선언하였다.<sup>64)</sup> 홀은 이러한 측면을 선교교육(missionary pedagogy)과 연결해서 교육적으로 구체화하였다. 그 교육의 핵심은 근처에 있든 멀리에 있든 타종교 전통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같은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사의 목표는 강제적으로 쉽게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타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전통 안에서 최대한으로 내적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데에 있다. 홀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진실한 선교사는 하나의 신앙에서 다른 신앙으로 개종시키는 것보다 더욱 고귀한 소명을 갖고 있다. 즉 그것은 예수가 유대교를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했듯이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신앙인들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모든 종교들은 만일 그것들이 정제되거나 곡해되어 있지 않다면 신과 인간을 향한 똑 같은 사랑과 봉사로부터 나온다. 이 점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자리로부터 물러나서 다소간 그러한 사랑과 봉사로 나아가게 하는 공통의 목표이다. 발생론적인 종교심리학의 가르침은 바로 이점을 확증해주고 있다. 단지 신학과 도그마만이 이 점을 부정한다. 사실 후자는 종교가 아니라 단지 경건성이 어떠한 조건 아래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련의 도구들이다. 그러나 그 도구들은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형성될 필요가 있다.<sup>65)</sup>

홀은 이러한 개방적인 생각 때문에 세계 종교전통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종교교육의 교과에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계종교전통을 발생심리학적 관점에서 분류해 각 종교전통들의 일반적인 이미지와 연결해서 종교교육을 제시하였다.<sup>66)</sup> 물론 그는 각 종교전통

63) G. Stanley Hall, *Educational Problems*, Vol. II,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207.

64) *Ibid.* p.668.

65) *ibid.* p.69.

66) G. Stanley Hall, *Morale: The Supreme Standard of Life and Conduct*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0), pp.358-59.

이 모두 생애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내용이 풍부하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각 종교전통간의 비교를 통해서 특정한 측면이 부각된 점을 강조해서 종교교육의 교과내용을 구상하였다. 그는 유년기에 필요한 경전은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는 구약성서이지만 비교종교학적인 관점에서는 유교가 어린 아동에게 필요한 내용이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의 경전이 다음 단계의 유년기에 적절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생물학적으로 성과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와 청·장년기에는 예수의 사랑이 핵심인 그리스도교가 적절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다음의 시기인 장년기와 노년기에는 불교와 브라만교가 적절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제자인 듀 바이(Du Buy)의 글을 통해서 더욱 구체화되었다.<sup>67)</sup> 각각의 종교전통은 필요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다른 종교전통의 경전 중에서 시기에 적절한 내용을 자신들의 종교교육에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의 상황으로는 매우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성경학교에 대한 글을 추천하기 위한 서문에서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였다.<sup>68)</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나는 그랜빌 스텐리 홀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그의 유년기 심리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그러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는 먼저 홀이 유년기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배경과 그의 전체 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홀이 유년기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그의 어머니의 주일학교에서 가르친 경험과 많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남겨둔 주일학교 교과안이나 주일학교 아동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내용은 홀에게 유년기에 대한 연구방향을 새롭게 갖게 해주었다. 물론 홀은 유년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생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각 생애시기마다 굵직한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전체연구에 있어서 유년기 아동에 대한 연구는 그의 연구 관점이나 방법이었던 발생심리학의 관점에서 중심 분야였다. 그런 다음 나는 홀의 유년기 연구에 있어서 종교성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홀의 다른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 대한 이해는 그의 연구의 주변 분야가 아니라 핵심 분야임을 유년기의 종교성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유년기의 종교성은 청소년기나 장년과 노년기의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시기의 종교성은 성장해서 갖게 되는 종교성의 원천이 되는 못자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시기의

67) Jean Du Buy, 'Stages of Religious Development' in *The American Journal of Religious Psychology and Education* Vol.I. No.1. (May, 1904), pp.7-29.

68) G. Stanley Hall, "Introduction" in *The Pedagogical Bible School* by Samuel B. Haslett(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3), pp.3-4.

종교성이 제대로 발달되지 못하면 부정적인 종교성을 드러내 놓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종교성을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는 종교교육은 필요조건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홀은 어떤 교육보다도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을 연결시켜주는 유년기의 종교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는 세 가지 측면, 즉 아주 어린 유아기에 해당되는 엄마와의 교육, 그런 다음 자연과의 교육 그리고 종교전통의 경전을 통한 교육으로 나누어서 종교교육의 교과내용이 구성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나는 이러한 종교교과 내용에 대한 특성을 마지막 장에서 기술하였다.

나는 이러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해가면서 유년기를 비롯한 다른 모든 시기의 인간의 보편적 종교성에 대한 홀의 인간학적인 논의는 종교학의 기본 전제인 인간을 종교적인 인간(homo religious)으로 이해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홀은 근대 이후 급격히 부상되기 시작한 성과 속의 이원론적인 입장에서 종교를 성의 세계 즉 초자연적인 세계로 속을 그것과 대비되는 자연적인 세속의 세계로 나누어서 종교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그는 소위 성과 속의 범주 모두는 같은 뿌리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그의 모든 글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서구 종교사 또는 지성사의 핵심적 논쟁중의 하나인 종교와 철학의 갈등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갈등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홀은 종교, 철학 그리고 과학의 기본적인 뿌리가 전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듯이 다른 곳 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 이후에 나온 개념, 교리, 법칙, 사상, 의례 등은 이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이차적인 표상이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욕구를 채워주는 매개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매개 역할이 인간이 경험하는 내면을 언제나 절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심층적인 경험이 매개물을 통해서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출의 과정에는 언제나 그 매개물을 넘어서는 새로운 내면의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심이 되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매개물은 끊임없이 새롭게 확장되어 간다.

홀은 종교, 철학 그리고 과학을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활동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간의 전 생애와 그 생애가 만들어 놓은 모든 활동에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 인간의 활동 중에서 교육의 영역을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과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연구하였다. 인간의 영혼과 연결되진 않은 개념적인 추상적 교육은 비인격적인 물화된 교육이다. 홀은 인간의 심층적인 내면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역을 종교라고 생각해서 언제나 종교를 그의 교육론에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홀의 유년기 종교교육을 비롯하여 모든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는 공교육의 장에서는 거의 무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약간 도덕교육의 일환으로 언급되고 있는 인식과는 정반대였다. 오히려 그의 종교교육은 교육의 원형이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가 종교교육을 강조했다고 해서 지금처럼 종립학교에서 학생들의 내적인 상태와 많이 분리되어 있는 교리 내지 개념교육을 종교교육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

히려 그러한 교육은 진정으로 종교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의론이나 내적으로 공허한 상태로 이끌어 성장해서 회의론 내지 부정적인 종교적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홀의 이러한 논의는 비록 100 여 년 전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와 모든 삶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고 있다. 최근에 종교문제로 인한 갈등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에 홀의 논의는 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서구 현대문화에서는 단순히 종교를 전통적인 범주로 분류해서 끊임없이 종교문제를 공적인 담론으로 끌어들이어 함께 논의하기 보다는 사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려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삶과는 시대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편견’의 담론이 지배적이어서 종교교육은 공교육에서는 금기사항이 되었었다. 반대로 종립학교에서는 그러한 편견에 대항해서 종교교육을 시행하였지만 많은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종교전통에 대한 교리교육이 중심이어서 학생들의 심층적인 내면교육을 넘어서서 다른 종교전통과 그 전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서구의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민, 노동, EU처럼 경제와 정치의 통합 그리고 9/11 사태의 영향으로 종교에 대한 근대적인 이해를 이미 수정하였고 적극적으로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교육적으로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종교교육이 자신과 타인들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모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최근에는 다양한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시민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또는 죽음교육과 연계해서 공교육기관에서 종교교육을 시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기존의 종립학교에서도 전통적인 교리중심적인 종교교육보다는 다른 종교전통에 참여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로 서구에서는 종교교육이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공공의 삶에까지 다시 새롭게 부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구의 현실과는 요원하게 한국의 상황은 아직도 종교교육과 관련되어서는 낙후되어 있다. 소위 교육학의 중심 논의에는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교육에 대한 한국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해 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논의가 제기되면 곧바로 수입하여 성급하게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독 종교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애써 최근의 논의를 피하고 있는 듯하다. 여전히 종교는 공적인 삶과는 어떠한 관련을 맺지 말고 사적인 영역으로만 남아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지금도 종교교육을 나름대로 종립학교에서는 창학 정신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방어적인 교육이어서 여전히 학생들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고 다른 종교전통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인간을 깊이 이해하는 공감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앞으로 한국의 현실은 국제결혼,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새터민, 다종교적인 상황에

단순한 침묵이 아닌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주체적인 자기인식의 확장, 다양한 매스컴을 통한 종교 간의 갈등에 대한 이해 시도 그리고 학생과 교사들의 영혼의 주체적인 욕망과 타자의 욕망과의 혼돈으로 인해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성찰하도록 추동하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교교육의 요청은 필수적으로 제기될 것이다. 특히 성인이 된 이후에는 교육적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변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강한 종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년기부터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요청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홀의 유년기 종교교육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위치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데 유효하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재영, 「인격형성의 궁극적 상징으로서 종교이해 - 그렌빌 스텐리 홀의 발생심리학을 중심으로」, 『인격 확립의 초월성』, 서울: 청계출판사, 2001
- \_\_\_\_\_, 「그렌빌 스텐리 홀의 종교이론-청소년기의 회심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 연구』 8-1, 2001
- \_\_\_\_\_, 「그렌빌 스텐리 홀과 존 듀이의 종교이론 비교: 종교의 질성과 표상분석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39, 2005, 여름
- Hall, G. Stanley, *Youth: Its Education,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D. Appleton, 1919.
- \_\_\_\_\_, *Morale: The Supreme Standard of Life and Conduct*, New York: London, 1920.
- \_\_\_\_\_,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Regimen, and Hygiene*, Volume, I, II, New York: D. Appleton, 1920.
- \_\_\_\_\_, *Educational Problems. Volume, I, II*, New York: D. Appleton, 1920.
- \_\_\_\_\_, *Aspect of Child Life and Education*, New York: London, 1921.
- \_\_\_\_\_, *Senescence: The Last Half of Life*,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22.
- \_\_\_\_\_, *Life and Confessions of a Psychologist*, New York: Appleton, 1923.
- \_\_\_\_\_, *Jesus, the Christ, in the Light of Psychology*, New York: D. Appleton, 1923.
- \_\_\_\_\_, *Founders of Modern Psychology*, New York: London, 1924.
- Hall, G. Stanley, 'Editorial Note' i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I, No. 1, 1887.
- \_\_\_\_\_, 'Introduction' in *The Pedagogical Bible School* by Samuel B. Haslett,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03.
- \_\_\_\_\_, 'Editorial' in *The American Journal of Religious Psychology and Education*, Vol. I, May 1904-August 1905.
- \_\_\_\_\_, 'The Point of View Toward Primitive Races' in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Vol. 1,

- Number 1, July 1910.
- \_\_\_\_\_, 'Mission and Pedagogy' in *The Journal of Race Development*, Vol. 1, Number 1, October 1910.
- \_\_\_\_\_, 'Thanatophobia and Immortality' in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Vol. XXVI, October 1915.
- Ross, Dorothy, *G. Stanley. Hall: The Psychologist as Prophet*, Chicago University Press, 1972.
- Burnham, William H., 'The Man, G. Stanley Hall' in *The Psychological Review*, Vol. 32, No. 2. March 1925.
- Du Buy, Jean, 'Stages of Religious Development' in *The American Journal of Religious Psychology and Education* Vol.I. No.I.
- Hulse Stewart H. and Green, Jr. Bert F., eds, *One Hundred Years of Psychological Research in America: Stanley Hall and the Johns Hopkins Traditi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6.
- Keen, Ernest, *A History of Idea in American Psychology*, London, Praeger, 2001.
- Kump, Robert J., *G. Stanley Hall's Efforts to Implement the Humboldtian University Idea at Clark University in Worcester, Massachusetts, USA*, Wien, Verlag Paul Haupt, 1996.
- Pratt, James B., 'The Psychology of Religion' in *Harvard Theological Review*, Vol. I. Number 4, October 1908.
- Ross, Dorothy, *G. Stanley. Hall: The Psychologist as Prophet*, Chicago University Press, 1972.
- Sanford, Edmund C., 'A Sketch of the History of Clark University' in *Publications of the Clark University library* edited by Louis N. Wilson, Vol. 7, No. 1, January 1923
- Strickland Charles E. and Burgess Charles, 'G. Stanley Hall: Prophet of Naturalism' in *Health, Growth, and Heredity* by Lawrence A. Cremi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5.
- Wilson, Louis N., 'In Memory of Granville Stanley Hall: Biographical Sketch' in *Publications of the Clark University library* edited by Louis N. Wilson, Vol. 7, No. 6, May 1925.

---

원고접수: 2007년 5월 10일 1차심사: 6월 3일 게재승인일: 6월 10일

연구자 소개: 김재영

① 전공: 종교학이론, 조교심리학, 종교교육학 / 소속: 서강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죽음학, 종교심리학

③ 주요논저: 「종교철학의 이해」, 「죽음학의 이해」

④ E-mail: chaekim@sogang.ac.kr

---

Abstract

## A Study of Granville Stanley Hall's Religious Education: Special Reference to his Analysis of the Childhood

Kim, Chae Young

Sogang University

In recent years the Western situation of the relation of religion and public sector is emerging in an opposite and contrary way as it has been. Nowadays, religion is a re-emerging public and civic issues in the world especially after 9/11 in the West. Surprisingly, in the European community and in North America, issues pertaining to religion and public affairs are presenting themselves in an urgently appealing way. In the world of religious studies, many religious discussions have begun to reformulate and to redefine issues that pertain to the relation of religion with public or civic life. I think that this situation is not far different in the Eastern situation.

The traditional way of life--irrespective of the Western or the Eastern--is facing the challenge from the effect of the immigration, the religious pluralism, the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globalization, and so on. Especially the new reality of the diverse world views to be fundamentally rooted in the various religions is not the future event but the actual present fact. Nevertheless the educational fields do not pay attention to this reality in relation to religious dimension of the contemporary human life. As its result, in educational fields many conflicts and misunderstandings would increase to form a new segregation or racism to be caused from the lack of the understanding of others' religions.

Above all in this situation for the correction of the religious prejudice I do think that comprehensive religious education as part of the public or the civic education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pluralistic religious world. Especially I think that i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ublic education.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mprehensive new religious education, I revisited one of the seminal thinkers in the history of education or religious education. I think that he is Granville Stanley Hall. In this paper, I tried to articulate his idea of religious education as a part of civic education to be still good for the present situation. His idea is so broad that in this paper I limited my research to his idea of religious education for the childhood corresponding their natural religiosity.

In the development of this paper I came to realize that his understanding of the human nature as the religious was the same as the human understanding as *homo religious*. Due to this fundamental human understanding in his childhood education religious dimension was not one of various secondary elements but the key component. I think that his view should be reconsidered critically for the new paradigm for the 21st childhood education.

*Key words* : Granville Stanley Hall, Religiosity, Genetic Psychology, Naturalism, Childhood Education, Homo Religious, Psychology of Religion, Human Understanding